

인 사 말 씀

2016. 5. 3. (화), 16:00~16:45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서울에서 제1호”로
양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양천·강서·구로·영등포 지역의 서민분들에게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정책과 입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용태 의원님, 길정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II. 통합지원센터 개소의 의미

여러분,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싶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그간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경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이용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리(低利) 정책자금 공급을 연 4.7조원에서
금년 중 연 5.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무 연체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한
탄력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편방안'도
금년 상반기 내 차질없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온기(溫氣)가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인프라인
'통합지원센터'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복잡·다기한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융합하여,
수요자에게 '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서민분들이
통합지원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시면,
생활자금, 창업자금,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일자리 알선, 복지 지원 등
개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천 통합지원센터도
서울 시민분들의 금융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추진

여러분,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기능·재원·DB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 통합 DB를 기반으로
이용자별 이력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 등
보다 동태적·입체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유관기관간 조직·인력 통합 등을 통해
종합상담, 자활·재기 지원도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효과가
서민금융 현장에 '착근(着根)'하여
수요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진흥원 출범(9월) 이전에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총 33개소"까지 확대하여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網)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33개소의 전국망이 구축되면,
서민금융의 수요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1시간 정도 내에
쉽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는
이번 '양천'에 이어
5월 중 '광진·관악·노원',
9월 중 '중구'까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5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방 지역은 인구밀집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적 균형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인천, 수원, 천안, 전주, 순천, 울산 등지에
'총 28개소'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종합적·복합적 서비스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취업 알선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까지 융합 서비스가 가능토록,
최대한 고용·복지+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 입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상품 알선, 부채관리, 재무설계 등
즉, '서민금융 PB' 기능도 도입하여
종합상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도
현행 54개소에서 100개소 수준까지 대폭 늘려,
인근 통합지원센터와 다층적으로 연계한
신속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해
서민금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김용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IV. 맺음 말씀

여러분,
봄비가 땅을 촉촉이 적시는 '곡우(穀雨)'를 지나,
이제 5월 5일이면
산과 들에 신록(新綠)이 일기 시작하는
'입하(立夏)'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민금융도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고
더 많은 서민분들이 자활·재기에 성공하여
삶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의 등대'가 되어 줄
진흥원 출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망 구축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이 곳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